

청자에 의한 음운 변화의 유형

소신애*

- I. 서론
- II. 발화 해석 과정과 음운론적 재해석
- III. 청자에 의한 음운 변화의 유형
- IV. 결론

I. 서론

이제껏 음운 변화(phonological change)의 유형은 대부분 화자(speaker)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¹⁾ 그러나 실제하는 음운 변화 중에는 화자의 발화 산출 과정이 아닌 청자의 발화 해석 과정에서 촉발된 것도 적지 않다 (Jonasson 1971: 33-38, Andersen 1973: 765-772, Ohala 1981: 187-196, Ohala 1990: 258-275, Ohala 1993a: 237-278, Holt 1997: 115-191, Blevins 2007: 144-154 등). 따라서 다양한 음운 변화의 동인과 기제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화자의 측면뿐 아니라 청자(listener)의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공식적 발화 해석 과정에서 청자에 의해 촉발된 음운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에 명확히 설명되지 못했던 국어의 여러 음운 변화 중 발화 해석 과정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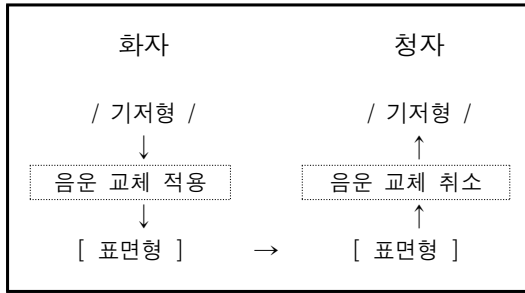
*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이때 '음운 변화'란 '음운론적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형태소의 음운 형식인 기저형의 변화를 가리킨다. 이러한 변화를 '재구조화(restructuring)' 또는 '재어휘화(relexicaliz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으로, 이들을 그 세부 동인과 기제에 따라 유형화할 것이다.

II. 발화 해석 과정과 음운론적 재해석

공시적인 발화 산출 과정과 발화 해석 과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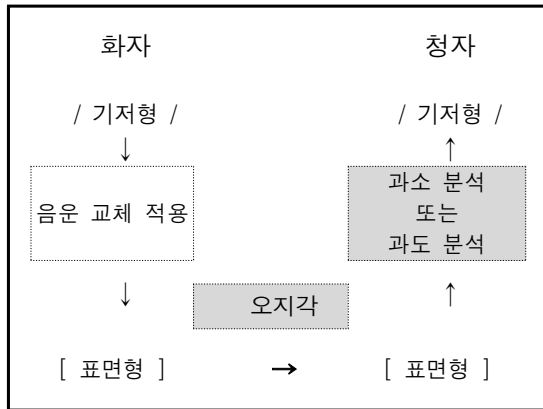
「그림 1」 발화 산출 과정과 발화 해석 과정

화자의 발화 산출 과정은 형태소의 기저형으로부터 표면형이 도출되는 과정이다. 이때, 표면형의 도출 과정에서 다양한 음운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 한편, 청자의 발화 해석 과정은 표면형으로부터 해당 형태소의 기저형이 복원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음운 교체의 취소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발화 산출 과정에서 촉발되는 음운 변화는 음운 체계 및 음운 규칙 체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 개별 음운의 조음 과정에서 변화가 촉발되거나, 규칙 첨가(rule addition), 규칙 소실(rule loss) 등으로 인해 음운 교체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반면, 발화 해석 과정에서 촉발되는 음운 변화는 음운론적 재해석에 기인한다. 화자가 산출한 표면형을 청자가 잘못 지각하거나, 청자가 표면형을 기

저형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실제와는 다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전자를 오지각(misperception)에 의한 변화라고 한다면, 후자는 과소 분석(hypo-analysis) 또는 과도 분석(hyper-analysis)에 의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²⁾



「그림 2」 발화 해석 과정상의 음운론적 재해석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자에 의한 음운 변화는 발화 해석 과정에서 표면형을 지각하는 단계와 해당 표면형을 기저형으로 복원하는 단계에서 각각 촉발될 수 있다. 이러한 오지각 및 과소·과도 분석은 화자가 산출한 표면형을 청자가 실제와 ‘다르게’ 해석한 것이라는 점에서 ‘음운론적 재해석(phonological reinterpretation)’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재해석’에 의한 음운 변화는 ‘유추(analogy)’와 같은 ‘비음운론적 요인’에 의한 음운 변화로 간주되어 왔다. 기존 논의에서 ‘음성

2) 청자가 화자의 음성형을 부정확하게 청취한 경우 ‘오지각’에 의해 새로운 기저형이 복원될 수 있는 한편, 청자가 화자의 음성형을 정확히 지각한 경우라도 ‘과소 분석’이나 ‘과도 분석’에 의해 새로운 기저형이 복원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Blevins(2004: 31-44)의 CCC-모형, 소신에(2012: 72-7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적' 혹은 '음운론적'이라고 할 때에는 암묵적으로 발화 산출의 관점, 즉 조음적 관점을 전제했기 때문이다.³⁾ 그러나 이 같은 '음운론적 재해석'에 의한 음운 변화 또한 '음성·음운론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재해석의 촉발 요인이 근본적으로 음성·음운론적인 데 있기 때문이다. 또, 재해석에 의해 특정 음운 변화가 촉발된 뒤, 변이를 거쳐 기저형의 변화가 완료되는 일련의 과정은 발화 해석 과정과 발화 산출 과정의 상호작용을 전제할 때 비로소 설명될 수 있다.

Ⅲ. 청자에 의한 음운 변화의 유형

대체로 발화 해석 과정에서 촉발된 음운 변화는 지각적·심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적용 양상 또한 불규칙적·산발적이다. 발화 산출 과정에서 촉발된 음운 변화가 주로 조음적 동인에 의한 것이며, 그 적용 양상 또한 규칙적·일반적이라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음운 변화의 출현 양상에서 드러나는 이 같은 사실은, 기존에 조음적 동기를 찾을 수 없었던 산발적(sporadic) 음운 변화들이 발화 해석 과정에서 촉발된 것일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실제로 국어의 다양한 음운 변화 중에는 청자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예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그간 보고되어 온 청자에 의한 음운 변화의 예들을 그 세부 동인 및 기제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

-
- 3) 일찍이 음성 법칙의 무예외성을 주장한 소장 문법학파는 음성 법칙의 예외를 '유추'로써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유추에 의한 변화는 본고에서 상정하는 '청자에 의한 음운 변화'와 통하는 면이 있다.
 - 4) 여기 제시하는 예들은 대부분 기존에 개별 음운 변화로서 논의되었던 것들이다. 본고는 이 같은 예들을 청자에 의한 음운 변화의 관점에서 유형화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제시된 예들은 어디까지나 일부의 예일 뿐이며, 이 밖에 더 많은 예들이 같은 유형 아래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1. 음운의 오지각에 의한 변화

화자가 산출한 표면 음성형 중의 특정 음을 청자가 잘못 지각함으로써 기저형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즉, 화자가 산출한 특정 음운 /A/를 청자가 다른 음운 /B/로 지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A/ > /B/와 같은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로 음운 /A/와 /B/ 간의 음성적 유사성(phonetic similarity)에 기인한다. 유사한 음성으로 실현된 두 음운이 청자에게 ‘음향적 혼동(acoustic confusion)’을 야기하고, 이에 청자에 의한 ‘오지각(misperception)’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국어의 음운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1. p/k 교체

‘p/k 교체’란, 순음 p(=/ㅍ/)와 연구개음 k(=/ㄱ/)가 상호 대체되는 음운 현상이다. ‘습>속(裏)’, ‘거북>거북(龜)’과 같은 p>k 변화와 더불어, ‘무적>무점(塊)’, ‘일죽>일즙(曾)’과 같은 k>p 변화가 공존하는 까닭에, 이를 아울러 ‘p/k 교체’라고 부른다.

기존에는 p와 k처럼 불연속적인 조음 위치에서 산출되는 음끼리의 교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음성적 도약(phonetic leaps)

(Kiparsky 1965: 11)과 같은 개념에 기대야만 했다. 그러나 조음적 관점에서 설명되지 않는 이 같은 현상도 발화음의 지각적 측면을 고려하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교체를 보이는 두 음운 p와 k가 공유한 자질은 [+grave]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음향적 관점에서 정의된 자질(Jakobson et al. 1952/1965: 29-30, Jakobson and Halle 1956/1971: 43 등)임을 고려할 때, 이 두 음운 간의 교체는 음향적 유사성에 기인한 오지각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

5) 청취 실수에 관한 연구인 Bond(2005: 290-291)에 따르면, 모음에 비해 자음이 잘못 인지되는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Hock(1991: 641)은 연구개음과 순음 간의 교체를 ‘음향적 혼동(acoustic confusion)’ 혹은 ‘재해석(reinterpretation)’과 관련된 변화로 해석한 바 있다.⁶⁾ 네덜란드어와 영어에서 나타나는 순음과 연구개음의 어말 중화(‘f>x’와 ‘x>f’)의 예를 들면서, 이러한 변화는 조음적 관점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으나, 음향적 관점에서는 설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연구개음과 순음은 음향적 자질인 [+grave]를 공유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Hock 1991: 96, 641).

문헌 및 방언에 두루 나타나는 국어의 p/k 교체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소신애 2011: 101-134). p/k 교체의 직접적 동인을 화자의 조음 과정이 아닌, 청자의 지각 과정에서 찾을 때, 보다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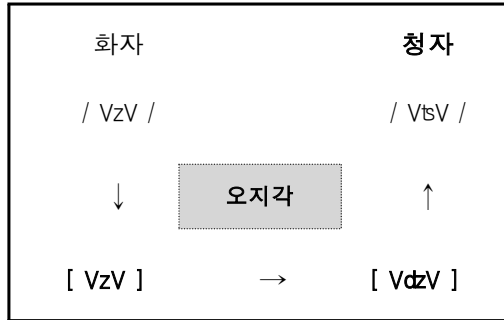
1.2. Δ>ㅅ 변화

중세 국어의 Δ은 대부분의 어사에서 Δ>∅의 변화를 겪었으나, 일부 어사에서 Δ>ㅅ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흐닐ㅅ>흐온자(獨)’, ‘손소>손조(自)’, ‘몸소>몸조(躬)’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런데 Δ>∅와 달리, Δ>ㅅ은 조음적 측면에서 그 동인을 찾기가 어렵다. 전형적인 약화(weakening) 환경에서 일종의 강화(strengthening)가 일어난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발화음의 지각적 측면을 고려하면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우가 많으며, 청취 실수의 결과 자음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상호 대체를 일으킨다고 한다.

- 6) Jonasson(1971: 33-34)도 라틴어의 치음 앞 연구개음이 루마니아어에서 순음으로 바뀐 변화를 ‘재해석’의 관점에서 해석한 바 있다.
- 7) 다만, 청자의 오지각으로 인해 p>k 혹은 k>p형의 기저형이 복원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기저형의 재구조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어휘부에 p>k 혹은 k>p형의 새로운 기저형이 추가되고, 이것이 발화 산출 과정에서 화자에 의해 빈번히 선택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기저형의 재구조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자에 의해 촉발된 변화 또한 화자의 발화 산출 과정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완료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음운의 오지각에 의한 Δ>ʈ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성음 사이의 [z]를 청자가 [dz]로 지각할 경우, 발화 해석 과정을 통해 /z/ > /ʈ/와 같은 음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오지각이 가능한 이유는 유성음 사이의 Δ (= /z/)과 유성음 사이의 ʈ (= /ʈ/), 즉 [dz] 간에 음성적 유사성(phonetic similarity)이 존재하기 때문이다.⁸⁾ 비음운화 단계의 Δ이 지닌 음운론적 애매성(phonological ambiguity) 또한 이러한 오지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소신에 2012: 51-84).

1.3. 체언 어간말 ‘으>오’

체언 어간말 ‘으’가 ‘오’로 변화된 현상(예. ㄱ락>가로(>가루)(粉), 흐락>하로(>하루)(一日))도 음운의 오지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으/ > /오/ 변화는 집진적인 변이음역의 합류에 의한 것으로, 이 또한 ‘으’와 ‘오’의 음성적 유사성에 기인한다(소신에 2015: 175-206). 비어두 음절에서 실현되는 ‘으’는 그 약화된 조음으로 인해, 청자에 의해 지각되는 ‘오’는 모음도 상에서 매우 분산되어 분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일부 어사에서 ‘으’의

8) 모음 간 유성음화에 의해 유성음화된 파열음과 파찰음은 빠르고 다소 부주의한 발화에서 약화되어 마찰음이나 접근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경구개 파찰음 /ʈ/이 마찰음화될 때는 보통 [z]로 발음된다(이호영·지민제·김영송 1993: 22-23).

변이음역이 인접음인 ‘오’의 변이음역과 점진적으로 중복됨에 따라, 비어두 음절의 ‘으’가 점차 ‘오’로 지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비음운화 단계의 ‘으’가 지닌 음운론적 애매성 및 ‘으’와 ‘오’의 음성적 유사성으로 인해 청자의 지각적 혼동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Blevins 2004: 31-44). ‘으’의 음가가 ‘오’와 유사했음은 선행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이며, 음운론적 애매성을 지닌 음 A를 청자가 다른 음 B로 인식함으로써 A>B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언어 보편적으로도 관찰 가능한 현상이다.

2. 음운 연쇄의 오지각에 의한 변화

화자가 산출한 표면 음성형 중의 개별 음운뿐 아니라, 특정 음운의 연쇄를 청자가 잘못 지각함으로써 기저형의 변화가 야기될 수도 있다. 즉, 화자가 산출한 음운 연쇄를 청자가 상이한 음운 연쇄로 지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저형의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로, 해당 음운 연쇄의 음성형이 지닌 음운론적 애매성(phonological ambiguity)에 기인한다.⁹⁾ 하나의 음성형에 대해 둘 이상의 지각 가능성이 존재할 때 오지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국어의 음운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1. syV>sV 및 tsyV>tV

근대 국어 단계에 형태소 내부의 syV 연쇄가 sV 연쇄로 재구조화되는 변화(예. 셔->서-(立)) 및 tsyV 연쇄가 tV로 재구조화되는 변화(예. 작->작-(小))가 발생하였다. 이 현상은 조음적 관점에서 ‘s 뒤 y 탈락’, ‘ts 뒤 y 탈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한편, 청자의 오지각에 의한 변화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蘇信愛 2002: 41-51, 소신애 2009a: 266-290).

9) Andersen(1973: 765-772)에서는 음운 연쇄의 애매한(ambiguous) 음향적 속성으로 인하여 제 2세대의 청자가 해당 음운 연쇄를 재해석함으로써 특이한 음운 변화가 일어난 다양한 언어의 예를 들고 있다(예. 체코어의 Teták 방언과 Peták 방언, 라틴어, 영어 등).

/syV/에 /s/의 경구개 변이음화가 적용된 음성형 [šV](=/syV/)를 청자가 [sV]로 지각함으로써 기저형을 /sV/로 복원할 경우, 결과적으로 /syV/ > sV/와 같은 기저형의 재구조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syV/ > sV/의 재구조화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¹⁰⁾

/syV/ [syV] > /syV/ [šV] > /syV/ [šV]~[sV] > /sV/ [sV]

이때 's 뒤 y 탈락 현상'의 수의적 적용으로 인해 /syV/에 대한 두 표면형 [šV]와 [sV]가 공존함에 따라 이 같은 오지각은 더욱 촉진되었을 것이다.¹¹⁾

/tsyV/의 /tsV/로의 변화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tsyV/에 /ts/의 경구개 변이음화가 적용된 음성형 [tʃV](=/tsyV/)를 청자가 [tsV]로 지각함으로써 기저형을 /tsV/로 복원할 경우, 결과적으로 /tsyV/ > tsV/와 같은 기저형의 재구조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때 'ts 뒤 y 탈락 현상'의 수의적 적용 또한 [tʃV]와 [tsV]를 공존케 함으로써 이 같은 오지각을 촉진하였을 것이다.

2.2. ㄱ 구개음화

일반적으로 구개음화는 조음적 동인에 의한 음운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ㄱ 구개음화(예, 길>질(道), 길->질-(長))에는 조음적 동인뿐 아니라 지각적 요인도 아울러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Ohala 1992: 319-321, Ohala 1993b: 156-158, Guion 1996: 155-201, Guion 1998: 18-22, Lee 2000: 425, Blevins 2004: 138-139, 박종희·권병로 2011: 48-67 등). /l/ 앞에서 /ㄱ/과

10) 허웅(1965/1985: 536-537)도 이와 유사한 재분석의 과정을 상정하여 'syV>sV'의 변화를 설명한 바 있다. 도식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어른의 음소관념] | [실현된 발음] | [아이들의 음소관념] |
| /sjɔ/ | [ɕjɔ] | |
| | [ɕo] | /so/ |

11) 불분명한 음성형이나 다양한 음성적 변이형에 노출된 청자는 음운론적 재해석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청자에게 주어진 음성형은 해석의 애매성(ambiguity)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스/이 음향적 유사성을 지남으로 인하여 청자의 지각적 혼동 및 오지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¹²⁾

Guion(1998: 20-31)에 따르면, 많은 언어에서 유성 연구개음보다 무성 연구개음의 구개음화가 더 빈번히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실험 결과상, 무성 연구개음(=[k])은 유성 연구개음(=[g])보다 경구개 치경음(=[tʃ]([dʒ]))과 음향적으로 더욱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 같은 음향적 요인을 고려할 때, ㄱ 구개음화가 주로 어두 위치에서 일어나고 비어두 위치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지각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된다(소신애 2014a: 5-39). 국어의 ㄱ(=/k/)은 어두 위치에서 무성음 [k]로 실현되고, 비어두의 유성음 환경에서는 유성음 [g]로 실현되므로, 비어두보다는 어두 위치에서 경구개 치경음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3. 표면형의 과소 분석에 의한 변화

청자가 지각한 음성형을 기저형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과소 분석(hypo-analysis)을 수행함으로써 기저형의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이때 과소 분석이란, 표면형으로부터 기저형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실제 취소해야 할 음운 교체보다 더 적은 수의 음운 교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소신애 2009b: 192). 이러한 과소 분석의 동기는 표면형을 기저형과 일치시키려는 제약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다.¹³⁾ 즉, 청자가 지각한 표면형을 그대로 기저형으로 인식함으로써 결국 표면형과 같은 형태로 기저형의 재구조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국어의 음운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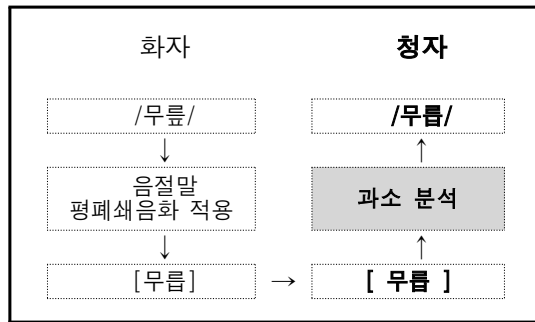
12) Ohala(1992: 319-321, 1993b: 156-158), Guion(1996: 155-201, 1998: 18-22)은 연구개음의 구개음화(velar palatalization)를 지각적 요인에 의한 음변화로 간주한 반면, Lee(2000: 425), Blevins(2004: 138-139), 박종화·권병로(2011: 48-67)은 연구개음의 구개음화에 조음적 요인과 지각적 요인이 아울러 작용했을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본고는 후자의 입장이다.

13) 소신애(2009a: 395-398)에서는 이를 '표면-기저 일치 제약'이라고 부른 바 있다.

3.1. 체언 어간말 유기음의 평음화

국어의 체언 어간말 유기음이 평음으로 재구조화되는 현상의 예로 ‘무릎> 무릅(膝)’, ‘부엌>부엌(廚)’ 등을 들 수 있다.

자음이나 휴지 앞에서 체언 어간말 유기음은 ‘음절말 평폐쇄음화’를 거쳐 평음으로 실현된다(예. /무릎/→[무릅]). 이를 지각한 청자가 표면형(예. [무릅])을 기저형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음절말 평폐쇄음화’의 효과를 취소시키지 않음으로써, 표면형인 [무릅]이 그대로 기저형(예. /무릅/)으로 복원되면, 결과적으로 /무릎>무릅/과 같은 재구조화가 야기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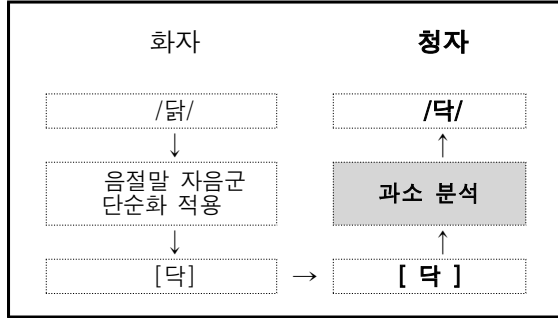


「그림 4」 과소 분석에 의한 어간말 유기음의 평음화

3.2. 체언 어간말 자음군의 단순화

국어의 체언 어간말 자음군이 단자음으로 재구조화되는 현상의 예로 ‘닭> 닭(鷄)’, ‘여덟>여덜(八)’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 또한 청자의 발화 해석 과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이해된다.

자음이나 휴지 앞에서 체언 어간말 자음군은 ‘음절말 자음군 단순화’를 거쳐 단자음으로 실현된다(예. /닭/→[닥]). 이를 지각한 청자가 표면형(예. [닥])을 기저형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음절말 자음군 단순화’의 효과를 취소시키지 않음으로써, 표면형인 [닥]이 그대로 기저형(예. /닥/)으로 복원되면 결과적으로 /닭>닥/과 같은 재구조화가 야기되는 것이다.



「그림 5」 과소 분석에 의한 어간말 자음군의 단순화

4. 표면형의 과도 분석에 의한 변화

청자가 지각한 음성형을 기저형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과도 분석(hyper-analysis)을 수행함으로써 기저형의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이때 과도 분석이란, 청자가 표면형으로부터 기저형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실제 취소해야 할 음운 교체보다 더 많은 수의 음운 교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소신에 2009b: 196, 소신에 2013: 100). 일반적으로 과도 분석의 동기는 사회적 권위(social prestige)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사회적 권위를 지향하여 수행된 과도 분석을 ‘과도 교정(hyper-correc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¹⁴⁾ 따라서 기존에 논의되어 온 과도 교정에 의한 음운 변화가 이 유형에 포함된다(蘇信愛 2007: 183-207).

여기서는 사회적 권위 지향 여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과도 분석의 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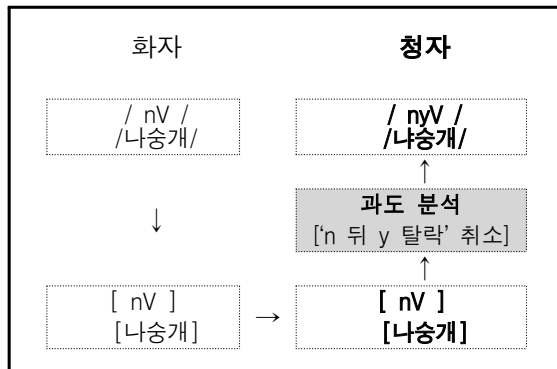
14) ‘과도 교정’이라는 용어가 사회적 권위의 유무와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여하한 사회적 권위와 무관한 중립적 용어로서 ‘과도 분석’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도 분석’ 또한 근본적으로는 모종의 사회적 권위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상관성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잠정적으로 이를 ‘과도 분석’으로 부른다.

4.1. 어두 nV>yV 변화

국어에는 ‘너기->여기-(想)’, ‘나중>야중(乃終)’, ‘나승개>야승개(齊)’와 같은 ‘어두 nV의 yV로의 변화’가 존재한다. 그간 이 변화는 조음적 관점에서 그 동인을 찾을 수 없는 예외적 변화로 간주되어 왔으나, 발화 해석 과정의 측면에서는 그 동인을 찾을 수 있다.

어두 nV>yV는 nV>nyV>yV라는 점진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때 nV>nyV라는 변화는 ‘n 뒤 y 첨가’를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n 뒤 y 첨가’는 일반적인 음운 현상이 아닐 뿐 아니라, 조음적 관점에서 그 음성적 동인을 찾을 수 없다. 반면, 공존하는 음운 현상이었던 ‘n 뒤 y 탈락’은 조음적 동인에 의한 음운 현상으로서 ‘n 뒤 y 첨가’ 현상과는 ‘작용과 반작용(action and reaction)’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n 뒤 y 첨가’는, nyV 연쇄에서 y가 탈락하는 현상에 이끌려 역으로 nV 연쇄에 y가 삽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공식적 관점에서, nV형을 청취한 청자의 발화 해석 과정에서 ‘n 뒤 y 탈락 현상’에 유인된 과도 분석이 수행됨으로써 nyV형의 기저형이 복원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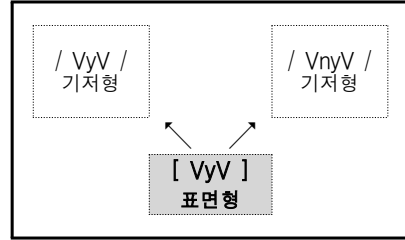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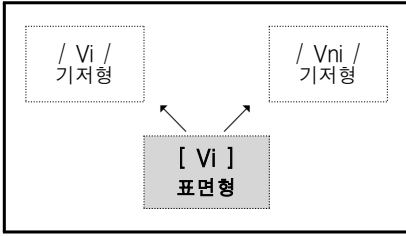
「그림 6」 과도 분석에 의한 nV>nyV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자는 표면형인 [nV]형(예. [나승개])을 기저형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적용되지 않은 'n 뒤 y 탈락'이라는 음운 현상의 효과를 과도하게 취소하는, 이른바 과도 분석을 수행함에 따라 /nyV/형(예. /나승개/)의 기저형을 복원하게 된다. 이러한 과도 분석은 당시 'n 뒤 y 탈락'이라는 음운 현상에 대한 청자의 인식에 근거한다. 즉, 'n 뒤 y 첨가'는 'n 뒤 y 탈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nV>nyV' 변화 이후 '어두 ㄴ 탈락'에 의해 'nyV>yV'와 같은 변화가 뒤따르면, 결과적으로 'nV>yV'와 같은 변화로 귀착된다(蘇信愛 2014b: 93-120).

4.2. 개음절 뒤 ㄴ 삽입 현상

일반적으로 알려진 국어의 ㄴ 삽입 현상은 폐음절 뒤에 한정되어 일어난다. 즉, i나 y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결합할 때 수의적으로 ㄴ이 삽입된다. 그런데 방언에 따라서는 개음절 뒤의 i, y 앞에도 간혹 ㄴ이 삽입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예컨대, '기어이'를 '기어니(~기여니)'라고 하거나, '모양(模樣)'을 '모냥'이라고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그 적용 양상이 매우 산발적일 뿐 아니라, 조음적 관점에서 그 동인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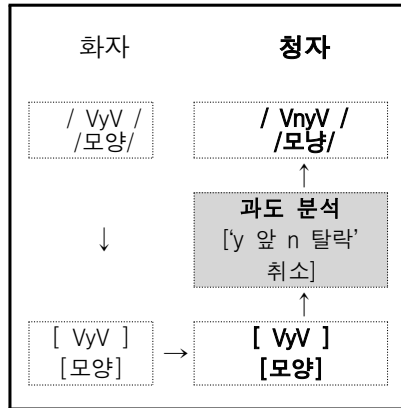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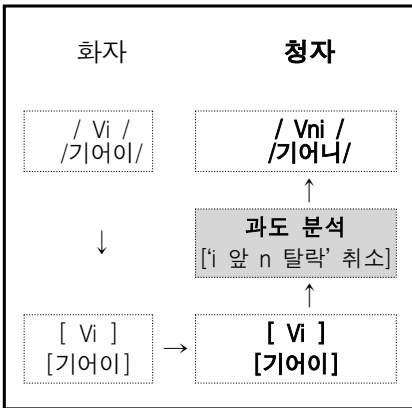
그러나 청자의 발화 해석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어중 ni, nyV 연쇄에서의 ㄴ 탈락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같은 i, y 앞에 ㄴ이 삽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언급해 온 바와 같이, 어중 ni, nyV 연쇄에서의 비모음화 및 비음 탈락 현상은 국어의 여러 방언에서 관찰된다. 따라서 이 같은 ㄴ 탈락 현상의 존재를 감안하면, 발화 표면에 나타나는 Vi 연쇄나 VyV 연쇄 중에는 기원적인 것 외에도, ㄴ 탈락에 의해 형성된 것 또한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표면의 Vi 연쇄나 VyV 연쇄에 대한 청자의 해석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그림 7」 Vi 연쇄에 대한 해석 가능성

「그림 8」 VyV 연쇄에 대한 해석 가능성

위에서 보는 것처럼 Vi, VyV 연쇄는 Vi, VyV 외에도 Vni, VnyV로 해석될 가능성을 지닌다. 표면의 Vi, VyV를 Vni, VnyV 연쇄에서 ㄴ이 탈락된 결과로 인식함으로써, 청자가 기저형 복원 과정에서 오히려 ㄴ을 삽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과도 분석에 의한 Vi>Vni

「그림 10」 과도 분석에 의한 VyV>VnyV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자는 표면형인 [Vi]형(예, [기어이])을 기저형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적용되지 않은 'i 앞 n 탈락'이라는 음

운 현상의 효과를 과도하게 취소하는, 이른바 과도 분석을 수행함에 따라 /Vni/형(예. /기어니/)의 기저형을 복원하게 된다. 이러한 과도 분석은 당시 ‘i 앞 n 탈락’이라는 음운 현상에 대한 청자의 인식에 근거한다. 즉, ‘i 앞 n 삽입’은 ‘i 앞 n 탈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y 앞 n 삽입’(예. /모양>/>/모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蘇信愛 2013: 87-117).

IV. 결론

본고는 청자의 발화 해석 과정에서 촉발된 음운 변화의 예를 검토하고 이를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기존에는 주로 화자의 발화 산출 과정에서 음운 변화의 동인과 기제를 찾고자 하였던 까닭에, 명확한 조음적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변화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음적 관점에서 설명되지 못했던 음운 변화도 발화의 지각적 측면에서는 보다 합리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어의 음운 변화 중 발화 해석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이들을 그 세부 동인과 기제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운의 오지각에 의한 변화로는 p/k 교체, $\Delta > \Sigma$ 변화, 체언 어간말 ‘으>오’ 변화 등이 있다. 이들은 화자가 산출한 표면 음성형 중의 특정 음을 청자가 잘못 지각함으로써 기저형의 변화가 야기된 경우이다.

둘째, 음운 연쇄의 오지각에 의한 변화로는 syV>sV 및 tsyV>tV, ㄱ 구개 음화 등이 있다. 화자가 산출한 표면 음성형 중 특정 음운의 연쇄를 청자가 잘못 지각함으로써 기저형의 변화가 야기된 경우이다.

셋째, 표면형의 과소 분석에 의한 변화로는 ‘체언 어간말 유기음의 평음화’, ‘체언 어간말 자음군의 단순화’ 등이 있다. 이때 과소 분석이란, 표면형으로부터 기저형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실제 취소해야 할 음운 교체보다 더 적은 수의 음운 교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표면형의 과도 분석에 의한 변화로는 ‘어두 nV의 yV로의 변화’, ‘개음절 뒤 ㄴ 삽입 현상’ 등이 있다. 이때 과도 분석이란, 청자가 표면형으로부터 기저형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실제 취소해야 할 음운 교체보다 더 많은 수의 음운 교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언급되었던 ‘과도 교정’에 의한 음운 변화가 이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음운 변화들은 청자의 발화 해석 측면에서 설명될 가능성을 지닌 예들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음운 변화에 두 기제가 동시에 작용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하나의 음운 변화에 오지각과 과도 분석이 아울러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ㅈ’이나 ‘개음절 뒤 ㄴ 삽입 현상’의 경우, 오지각에 의한 변화일 가능성과 과도 분석에 의한 변화일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소신애 2012: 51-84, 蘇信愛 2013: 87-117). 또, 하나의 음운 변화에 발화 해석 과정상의 동인과 발화 산출 과정상의 동인이 동시에 작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컨대, ㄱ 구개음화의 경우, 여기에는 조음적 요인과 지각적 요인이 모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청자의 공시적인 발화 해석 과정에서 촉발된 음운 변화의 유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변화의 촉발 기제에 대한 논의로서, 이러한 촉발로 인해 궁극적인 기저형의 변화가 일어나는 중간 과정에 대해서도 더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공시적 발화 해석 과정을 통해 청자의 어휘부에 새로운 기저형이 추가되고, 그러한 신형이 화자의 발화 산출 과정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형을 대체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선우, 국어의 유추적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고려대), 2006.
- 박종희·권병로, 「ㄱ 구개음화 현상의 인지적 고찰」, 『한글』 291, 한글학회, 2011, 47-72쪽.
- 蘇信愛, 「延邊 琿春地域 朝鮮語의 進行中인 音變化 研究 - 口蓋音化 현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서강대), 2002.
- 蘇信愛, 「言語 變化 機制로서의 過度 矯正 - 20世紀 初 咸北 方言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35-1(133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07, 183-207쪽.
- 소신애, 『음운론적 변이와 변화의 상관성』, 太學社, 2009a.
- 소신애, 「표기상의 오류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 『국어 교육』 129, 한국어교육학회, 2009b, 177-208쪽.
- 소신애, 「국어의 'p/k 교체'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58, 국어국문학회, 2011, 101-134쪽.
- 소신애, 「국어의 △>ㅈ 변화에 대하여」, 『震檀學報』 114, 震檀學會, 2012, 51-84쪽.
- 蘇信愛, 「開音節 뒤의 ㄴ 插入 現象에 대하여 - 全南 方言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41-1(157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13, 87-117쪽.
- 소신애,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67, 국어국문학회, 2014a, 5-39쪽.
- 蘇信愛, 「語頭 nV의 yV로의 變化에 대하여」, 『語文研究』 42-1(161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14b, 93-120쪽.
- 소신애, 「체인 어간말 '으>오' 변화에 대하여 - 중부 방언을 중심으로」, 『國語學』 74, 國語學會, 2015, 175-206쪽.
- 이호영·지민제·김영송, 「동시조음에 의한 변이음들의 음향적 특성」, 『한글』 220, 한글학회, 1993, 5-28쪽.
- 허 용, 『국어음운학』, 정음사, 1965[『국어음운학』, 샘문화사, 1985].
- Andersen, H., *Abductive and Deductive Change*, *Language* 49-4, 1973, pp.765-793.
- Andersen, H., *Perceptual and Conceptual Factors in Abduct Innovations*, In J. Fisiak(ed.), *Recent Developments in Historical Phonology*, Mouton, 1978, pp.1-22.

- Blevins, J., *Evolutionary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Blevins, J., *Interpreting Misperception: Beauty is in the Ear of the Beholder*, In M.-J. Solé, P. S. Beddor and M. Ohala(eds.), *Experimental Approaches to Phon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144-154.
- Blevins, J. P. and J. Blevins(eds.), *Analogy in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Bond, Z. S., *Slip of the Ear*, In D. B. Pisoni and R. E. Remez(eds.), *The Handbook of Speech Perception*, Blackwell, 2005, pp.290-310.
- Guion, S. G., *Velar Palatalization: Coarticulation, Perception and Sound Chang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6.
- Guion, S. G., *The Role of Perception in the Sound Change of Velar Palatalization*, *Phonetica* 55, 1998, pp.18-52.
- Hock, H. H., *Principles of Historical Linguistics*(2nd, revised edn.), Mouton de Gruyter, 1991.
- Holt, E., *The Role of the Listener in the Historical Phonology of Spanish and Portuguese: An Optimality-Theoretic Account*, Doctoral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1997.
- Hume, E. and K. Johnson(Ed.), *The Role of Speech Perception in Phonology*, Academic Press, 2001.
- Jakobson, R., G. M. Fant and M. Halle, *Preliminaries to Speech Analysis*, MIT Press, 1952/1965.
- Jakobson, R. and M. Halle, *Fundamentals of Language*, Mouton, 1956.
- Jakobson, R. and M. Halle, *Fundamentals of Language*(2nd, revised edn.), Mouton, 1956/1971.
- Jonasson, J., *Perceptual Similarity and Articulatory Re-interpretation as a Source of Phonological Innovation*, *Quarterly Progress and Status Report* 12-1, Speech Transmission Laboratory, 1971, pp.30-42.
- Kiparsky, P., *Phonological Change*,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1965[Reproduced by the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1971].
- Labov, W.,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vol. 3: Cognitive and Cultural Factors),

Wiley-Blackwell, 2010.

Lee, J.-K., *Velar palatalization-revisited*.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6-2, 한국음운론학회, 2000, 415-430쪽.

Ohala, J. J., *The Listener as a Source of Sound Change*. In C. S. Masek, R. A. Hendrick and M. F. Miller(eds.),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Language and Behavior*, Chicago Linguistic Society, 1981, pp.178-203.

Ohala, J. J., *The Origin of Sound Patterns in Vocal Tract Constraints*. In P. F. MacNeilage(ed.), *The Production of Speech*, Springer-Verlag, 1983, pp.189-216.

Ohala, J. J., *Sound Change is Drawn from a Pool of Synchronic Variation*. L. E. Breivik and E. H. Jahr(eds.), *Language Change*, Mouton de Gruyter, 1989, pp.173-198.

Ohala, J. J.,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Aspects of Assimilation*. In J. Kingston and M. E. Beckman(eds.), *Papers in Laboratory Phonology I*,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258-275.

Ohala, J. J., *What's cognitive, what's not, in sound change*. In G. Kellermann and M. D. Morrissey(eds.), *Diachrony within Synchrony: Language History and Cognition*[Duisburger Arbeiten zur Sprach- und Kulturwissenschaft 14], Peter Lang Verlag, 1992, pp.309-355.

Ohala, J. J., *The Phonetics of Sound Change*. In C. Jones(ed.), *Historical Linguistics*, Longman, 1993a, pp.237-278.

Ohala, J. J., *Coarticulation and phonology*. *Language and Speech* 36, 1993b, pp.155-170.

Pisoni, D. B. and R. E. Remez(ed.), *The Handbook of Speech Perception*, Blackwell, 2005.

Wedel, A., *Resolving pattern conflict: Variation and selection in phonology and morphology*. In Blevins, J. P. and J. Blevins(eds.), *Analogy in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83-100.

〈Abstract〉

Types of the phonological changes by listeners

Shin-ae So

This paper presents the types of phonological changes which are triggered by listeners in the speech interpretation process. There are some changes which are hard to be explained in the articulatory point of view. However, it is possible that those changes are explained in the viewpoint of speech interpretation process. This paper proposes four types of the phonological changes by listeners. They are changes by misperception of phonemes, changes by misperception of phoneme sequences, changes by hypo-analysis of surface forms and changes by hyper-analysis of surface forms.

Key words : phonological change, listener, speech interpretation process, misperception, hypo-analysis, hyper-analysis